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선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비자가 쓰려면 소액금리로
 *대형은 적당금리로
 *최고등급 주택자금, 경리사채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용서비스 제공
 *문의처: 06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자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김영삼대통령의 신앙생활에 대한 불교계의 비판정서가 거세다. 과연 다종교 사회에서 지도자의 종교관은 어떠한가. 경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자기가 믿는 종교만 숭배 해야 한다. 우바리거사는 "세종이시여,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세존에 대해 기쁨을 더하나다. 만일 내가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그들은 곧 갖대를 들고 돌아 다니며 나한테에 다음과 같이 소문을 낼 것입니다. '우바리거사가 내 제자가 되었다'고, '세종이시여, 오늘부터 모든 나간타교도들이 우리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직 세존의 4부중(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만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거사여, 저 나간타들은 내집에서 오랫동안 존경을 받았다. 저들이 오거든 너는 마땅히 저들을 공양하라."

"세종이시여, 저는 이 집에 세존께서 마땅히 내게 보시하고 다른 이에게 보시하지 않나. 마땅히 내제자에게 보시하고 다른 이의 제자에게 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사여,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일찍이 보시하여 마우겠 기뻐하라. 다만 잠진하지 않는 자에게 보시하지 말고 잠진하는 자에게 지성껏 보시하라'고."

(중야불경 제3 우바리경)

지도자의 종교관

자기가 믿는 종교만 숭배하면서 다른 사람의 종교를 비판·경멸하는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종교에 대한 찬양과 현신을 보이고자 함인데 그것은 반대로 자기 종교를 심히 손상케 하는 결과가 된다.

화합은 매우 좋은 것이다. 모든 신민들은 경청하라. 다른 이가 거르친 교리에도 귀를 기울일 자이다. (이소카 혁명비문 12장)

어느날 부처님께서는 나란대의 바바리나 숲에 계셨다. 그때 나간타인도에 있는 외도의 알파, 후세의 자이나교)의 제자 우바리거사가 '업에 관한 담론을 펼쳐 부처를 광복시키라'고 승복하고 귀의를 요구한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거사여, 그대같이 유망한 사람은 신중하게 처신

“종교편향 이대로 안된다”

조계종 대책위 구성·피해사례 창구개설... 'YS 사과' 촉구 성명 잇따라

김영삼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방부 구내 국군 중앙교회 예배당으로 찾아온 종교편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종교정책 시장을 위한 대정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스님)은 지난달 31일 총무원회의에서 "종교편향 정책 시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법타스님)를 구성하고 피해 사례 접수창구(팩스 02-733-8285, 하이텔-KBJOC001, 천리안-JOKYE, 부다파(02-732-1520)-JOKYE)를 개설했다.

종교편향 대책위원장 법타스님은 "대통령의 종교편향은 종교간에 위화감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성이 우려된다"며 "모든 종교편향 사례를 모아 집단이 나서 시정토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대책위는 이번 김대통령의 군교회 예배 파동 대책뿐 아니라 향후 정부의 종교편향정책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상설기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도 30일 긴급 중진회의를 열고 김대통령의 국군 중앙교회 예배 파동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결단, 3세이상 종교중진위원, 상임부과위원장, 사회분과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군 중앙교회 예배에 따른 파동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총무원이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의 공식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긴급 비상 임시총회를 소집해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통령의 군교회 예배와 관련, 지난달 30일 이양호 국방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하고 "김대통령의 군교회 예배에 따른 경호와 의전상의 문제로 군법당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에게 불편을 끼친점에 대해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종교관련 업무수행에 형편을 잃거나 편향되는 일이 없도록 불교계와 전국민앞에 책임지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천승가회동 승·제가 16개 단체는 이날 "종교편향정책의 중단과 교관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방장관의 사과와 대통령의 호도책이며 실질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9일까지 성의 있는 사과가 없을 때는 '반신



“참회 합니다” 조계종 중앙총무원 스님들은 지난달 29일 총무원 5층 법당에서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열린 포살법회는 전계대회상 일타스님을 게스트로 총무원장 월주스님, 교무원장 원산스님, 포교위원장 성타스님을 비롯 총무원 스님들이 참석했다. (권영기 기자 2·14면)

남북 불교지도자 회담 추진

조계종, 정부와 협의중... 5월 3·4일 조계사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불교지도자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에 맞춰 오는 5월 3,4일 서울 조계사에서 '경화통일을 위한 국제포교사업' 개최를 준비중이다. 이번 행사는 불교계의 통일정책과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과 남북불교지도자회담으로 진행된다.

총무원이 주최하고 조국평화 통일불교인협의회(회장 법타스님)가 주관할 이 심포지엄에는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위원장, 재일본조선불교도협회 총무수회장을 비롯한 북한불교 대표와 재일본한국불교협회

“경주고속철 대통령 결단 필요”

경주발전원 토론회... 건천 우회노선 지지

고속철도 경주도심구간 통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통치권자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주도시발전연구소(소장 김재석 경북산업대교수)가 지난달 26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고속철도 경주구간 해법에 관한 토론회'에서

사찰등급 심사

조계종, 분담금 내년 실시

조계종 사찰등급조정 중앙심사위원회(위원장 월주스님)는 지난달 30일 1차회의를 갖고 사찰등급 심사에 들어갔다.

중앙심사위원회는 직할사찰과 본말사의 등급사정을 위한 예산서를 이달 10일까지 수집하기로 하고 마곡사가 제출한 사찰등급에상서를 검토했다.

중앙심사위원회는 이달중 본사 및 말사, 직할사찰등급을 확정, 내년부터 등급에 따른 분담금부담을 시행하기로 했다.

민족사관학교 참선 수업 현장 14면

사형수에서 법사로 양동수씨 15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생명중심의 종합건설회사 기산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아파트, 토목, 플랜트, 환경사업 등 제반건설 분야에서 자동차 판매사업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게 신뢰를 쌓아온 종합건설회사기산
 기산이 새로운 각오로 21세기를 향해 도약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우선 생각하는 공간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
 그 '생명중심'의 신념으로 새로운 건설문화를 창조하며
 21세기 세계 초일류기업에 도전하고 있는
 기산을 지켜봐 주십시오.

KISAN

KISAN 주식회사 **기산**

● 본 사: 서울시 영등포구 목1동 406-28 TEL: 650-6500
 ● 건설사업부: 서울/수도권/동부(02)784-8221, 동부(04)71556-8961
 평남(03)625-6048 ~ 9, 화남(02)364-0370 ~ 3
 ● 자문사업부: 부산(051)627-3211, 대구(053)652-4800, 경남(055)22-4441

● **주택** 수도권 신도시 개발, 전국 방방 데카타 아파트 건설

● **건축** 기아 그룹 서울 지역 신도시 개발 사업

● **토목** 인천/경기/충청 지역 고속도로, 사천/고령/영주 건설

● **플랜트** 기아자동차 사천공장 등 대규모 플랜트 건설

● **환경** 인천 삼천리/배우역/서원/고령 등 대규모 환경사업

● **자동차판매** 기아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